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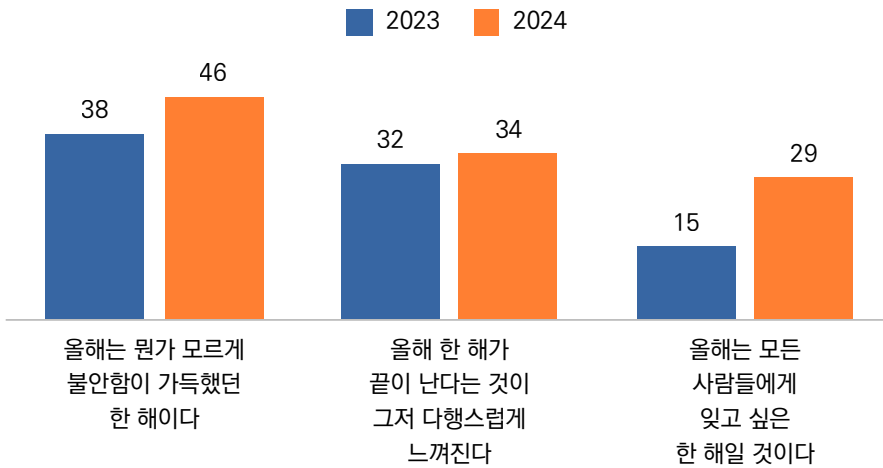


[직장인의 올해 평가와 내년 기대감]

직장인 절반 가까이, '올해는 불안함이 가득한 한 해이다'

- 탄핵 정국으로 연말 분위기가 어수선하다. 연말을 맞이하여 올해의 평가와 내년의 기대감을 최근 직장인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(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)를 살펴본다. 먼저 올해에 대한 전반적인 총평을 진술문으로 제시한 후 동의율을 파악한 결과, '올해는 뭔가 모르게 불안함이 가득한 한 해'에 절반 가까이(46%)가 동의했고, '모든 사람들에게 잊고 싶은 한 해'라는 인식이 29%로 두 가지 모두 전년보다 크게 증가해 사회 전반에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정서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.

[그림] 올해 전반적인 총평 (직장인, 동의율,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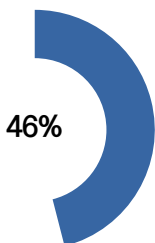
※출처 :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'2024 연말 분위기 및 연말 모임 관련 조사', 2024.12. (전국 만 19~59세 직장인 남녀 1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4.12.05.~12.09.)

내년에 대한 경제적 기대감, 46%에 머물러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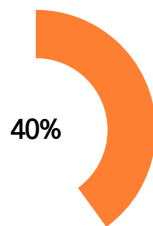
- 직장인들은 내년을 어떻게 기대하고 있을까? '올해보다 경제적으로 좀 더 나은 해가 될 것 같은 기대감이 있다'가 46%의 동의율로 절반에 못 미쳤으며, '올해보다 정치적으로 좀 더 나은 해가 될 것 같은 기대감이 있다'는 40%로 나타났다. 경제적 불확실성과 정치적 혼란으로 불안과 회의적인 분위기는 보다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염려가 되는 결과이다.

[그림] 내년(2025년)에 대한 기대감 (직장인, 동의율)

내년에는 올해보다 경제적으로
좀 더 나은 해가 될 것 같은
기대감이 있다



내년에는 올해보다 정치적으로
좀 더 나은 해가 될 것 같은
기대감이 있다



※출처 :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'2024 연말 분위기 및 연말 모임 관련 조사', 2024.12. (전국 만 19~59세 직장인 남녀 1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4.12.05.~12.09.)